

문화로 물드는 가을

커다란 크기의 압도적인 공연장이 관객들로 하여금 웅장하고 비장하게 만든다면 소극장은 낮은 천장과 무대와 가까운 좌석에서 배우들의 표정과 몸짓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의 역경을 떨쳐내고 우뚝 선 광주의 소극장을 조명하는 다양한 축제가 마련됐다.

소설 속 클래식 듣기

22·26일 문화전당

'하루키와 클래식 I·II' 공연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 속 클래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번 공연은 현장 연주와 함께 평론가의 해설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이 진행하는 북 앤 뮤직 '하루키와 클래식 I·II' 공연이 그것. 오는 22일과 다음달 26일 오후 3시 ACC 문화정보원 북라운지 계단.

이번 공연 모두 한양대 겸임교수인 음악평론가 송원민의 해설로 진행된다. 먼저 오는 22일 펼쳐지는 '하루키와 클래식 I' 공연엔 스윋뮤직가든의 연주자 '스윋뮤직앙상블'이 연주를 맡아 소설 '1Q84'와 '노르웨이의 숲'에 등장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 바흐의 '평균율 제1관'을 비롯해 '전주곡과 푸가', '신포니아 12번', '작은 푸가', '인벤션 1번'과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등을 들을 수 있다.

오는 11월 26일 펼쳐지는 '하루키와 클래식 II'는 ACC 개관 7주년 기념 공연으로 만날 수 있다.

소설 '태엽 감는 새와 양을 쫓는 모험', 수필 '샬러드를 좋아하는 사자'에 나오는 곡들을 클래식 앙상블팀 '이끈음'이 연주한다. 슈만을 비롯해 모차르트, 바흐, 라흐마니노프, 슈베르트의 곡들을 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서 확인.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연극·무용·뮤지컬·국악...공연 선물세트

소극장 축제

20일~다음달 13일까지

에린소극장·공연일번지 등 6곳

연극 '극동시베리아순례길' 첫 막

광주-대구 달빛 교류방식 '의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사)한국소극장협회 광주지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 25회 광주소극장축제'가 오는 2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린다.

1998년 시작된 소극장 축제는 광주 소재 300석 미만의 소극장에서 매년 개최되며 2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공연은 광주지역 소극장 6개소(에린소극장, 예술극장, 통, 씨어터 연바람, 공연일번지, 문예정터, 지니아트홀)와 ACC 예술극장 극장1 등에서 열린다.

작품은 연극부터 무용, 뮤지컬, 국악, 마임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으로 준비되었다.

공연의 첫 막은 ACC와 국립극단이 공동 제작한 '극동시베리아순례길' (20-23일 ACC 예술극장 극장1) 공연이 연다. 2021년 백상예술대상 젊은 연극상 수상자인 정진세 작가의 작품으로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배경에서 펼쳐진다.

이번 소극장 축제는 광주와 대구의 달빛 교류전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의미가 있다. 영호남 공동번영과 화합을 위해 지난 2013년 체결한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의 의의를 높이고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광주와 대구의 교류전은 광주소극장협회 무대가 대구에서, 대구소극장협회 무대가 광주에서 펼쳐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소극장축제에서 선보여지는 대구와의 교류 무대는 '그대는 봄'과 '향교 풀바' 두가지 작품이다.

먼저 '그대는 봄'은 극단예전이 에린소극장에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토 오후 6시, 일 오후 3시) 무대를 펼친다. '향교 풀바'는 극단 고령토의 무대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문예정터에서 열린다. 같은 방식으로 올해 12월에는 광주 소극장협회의 무대가 대구를 찾는다.

소극장 축제는 12일부터 13일까지 오후 2시 예술극장 통에서 열리는 극단창춘의 가족극 '고슴도치에게 선물을'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후에는 협력 행사로 '제 8회 광주시민연극제'가 광주소극장 곳곳에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전석 2만원이며 광주소극장협회 전화 혹은 티켓링크 사이트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222-7008.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극단 지니컬터 '총장예술극장'



극단예전 '그대는 봄'



유진규 마임 '내가 가면 그제 같이'

연극 공연을 잇다

극장·무대를 배우·관객을 푸른연극마을 연극열전 30일까지 씨어터 연바람

푸른연극마을의 '2022 연극 있다·있다 연극열전'이 이달 30일까지 소극장 씨어터 연바람에서 열린다.

연극 공연을 이어가고, 극장과 무대를 잇고, 배우와 관객을 잇는다는 취지의 공연은 총 3개 작품으로 관객들을 찾아가는다.

18일부터 20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꿈, 어떤 맑은 날' 작품은 어린시절 자라왔던 도시가 근황발에 짓밟히고 수많은 목숨이 스러졌던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20대 예술가 4명이 시간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해당 연극은 서울 대학로 연극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돼 22일과 23일 선보여 질 예정이다.

마지막 공연인 '사평역'은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1970년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형상화 한 원작사 '사평역에서'를 코로나19 이후 우리 시대 사회상을 그려낸 모습으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연극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각색해 무대를 꾸렸다. 관객들이 무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공연은 색다른 방식의 관객과의 소통으로 만족감을 선사했다.

관람료는 2만원이며 예매는 인터파크 플랫폼 이광주 등에서 가능하다. 문의 062-226-2446.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적벽가 노래한다

이왕재 판소리 고법 발표회

22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이왕재 판소리 고법 발표회 I 적벽가'가 오는 22일 오후 5시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전남대학교 국악과 석·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이왕재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타악 연주자로 모듬북 장시자 김규형 선생과 국가지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일통 김청만 선생에게 모듬북과 고법을 이수받았다. 현재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윤진철 명창의 보성소리 '적벽가'를 노래한다. 무대는 윤진철 명창과 스승 김청만 선생의 명고와 함께 '삼고초려 대목'부터 '공명이 조조에게 회상'에 이르는 대목으로 막을 연다. 두 번째 본 무대에서는 윤진철 명창의 소리와 이왕재의 북이 어우러져 '조조가 호기를 부리는 대목'과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하고 부르는 새타령 대목'을 꾸민다. 총 54개 윤진철의 보성소리 '적벽가' 중 이번 발표회에서는 35개 대목을 연주한다. 예매는 팜플렛에 적힌 계좌번호에 선입금 한 뒤 번호(010-9577-7865)로 문자를 넣으면 된다. 일반인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10-9577-7865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ncludes sub-sections for 아파트, 단독주택, and others.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ncludes sub-sections for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자동차, and others.

● 최고한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1.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10. 1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공정배